

경제여건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김 명 환	선임연구위원
권 오 복	연구위원
이 대 섭	부연구위원
김 태 훈	부연구위원
조 영 수	부연구위원
박 상 미	위촉연구위원

연구 담당

김 명 환	선임연구위원	연구 총괄
권 오 복	연구위원	농업거시 및 총량
이 대 섭	부연구위원	채소, 과채
김 태 훈	부연구위원	곡물
조 영 수	부연구위원	축산, 과일, 특작 및 기타 작물
박 상 미	위촉연구원	자료 정리 및 분석 보조

머 리 말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국내경제는 주식시장과 환율이 불안정하고,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많은 경제전망기관들이 내년도 우리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는 경제 일반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최근의 경제변화에 따른 국내 농업 부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다. 주요거시경제지표들의 동향과 전망치를 검토하고, 그것들이 주요 농산업부문과 총량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였다. 대부분의 농산물 생산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경영비가 증가하여 농업부가가치와 소득이 정체 또는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기적으로 농가의 경제적 타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가 농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200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요 약

이 연구는 최근의 경제변화에 따른 국내 농업 부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요거시경제지표들의 동향과 전망치를 검토하고, 그것들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였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적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2008년 세계경제는 3.7% 성장하고, 2009년에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어 2.2%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세계 경제 침체로 유가와 국제곡물가는 하향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호조에 불구하고, 내수부문의 부진으로 3.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2009년에는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이 감소하여 2%대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09년 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 국내 경기 둔화 등에 의해 3% 중반대로 전망되고 있다. 환율은 1,100~1,200원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제여건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전망 전문기관들의 2008~2009년 전망치와 2008년 12월 하순 현재 국내 경제동향을 참고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진정되어 환율이 안정되고, 경제성장률이 5%대로 유지되는 낙관적 시나리오와, 경기침체로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환율이 1,500원대에서 형성되는 비관적 시나리오, 두 가지 시나리오의 중간 수준 시나리오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모형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부분균형모형인 KASMO 2008(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이다.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08년 비료, 광열비, 사료 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113%, 44%, 36% 상승한 것으로 추계되고,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농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008년 농업생산액은 채소와 과일의 생산 과잉으로 생산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쌀의 생산량과 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9.9%, 7.3% 증가하여 전년 대비 1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0.2~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농업생산액은 증가했지만 중간투입재 비용의 대폭 상승으로 2008년 농업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0~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도 쌀 부가가치는 생산증가와 가격 호조로 12.7% 증가하였지만 향후 5년간 연평균 7.2~1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농업소득은 농업 전부문에서 중간투입재비를 비롯한 경영비가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추계된다. 쌀 소득은 전년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부가가치와 마찬가지로 농업총소득도 향후 5년간 연평균 1.7~9.0%의 감소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8년 농가소득은 3,111~3,1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2.7%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농업생산액 대비 농업경영비의 큰 폭 상승으로 2008년 호당 농업 소득은 전년 대비 7.9~8.2% 정도 감소한 955~95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농업외 소득의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전년 대비 0.01% 감소하고, 나머지 두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0.3%, 0.1% 증가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2008~2012년 호당농업소득은 연평균 0.4~8.0%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1.1% 증가하지만, 중간 및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연평균 0.4%, 1.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내외 경제여건변화에 따라 당분간 농업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농촌경제가 어려워져 그만큼 농업인들의 사기도 저하될 것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중장단기 대책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는 농가경영을 안정화시키고 농가소득을 늘릴 대책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 농업성장을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시킬 성장동력원 확보가 필요하다.

ABSTRACT

Impact of Change in Current Foreign and Domestic Economic Conditions on Korean Agricultural Sector and Policy Issues

The United States financial crisis is affecting not only world economy but also Korean economy resulting drastic shrinking object economy including consumption and investment. Many experts agree that this economic stagnation continues at least two years. Korean agriculture is expected to be negatively influenced by this shock.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analyze the impact of change in economic conditions including GDP growth rate, exchange rate, and international oil price on Korean agriculture and suggest some policy issues.

According to our analysis, higher exchange rate and international oil price lead to more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which reduces agricultural income and value added. It is estimated that agricultural production including rice decreases at an annual rate of $-0.2 \sim -2.3$ percent. Due to increase in intermediate input costs, agricultural value added and income is expected to be continuously decreased for five years 2008~2012. This implies that Korean agriculture will record minus growth unless new growth momentum such as expanding agricultural export is provided. Farm household agricultural income is also forecasted to be dropped for the years. In 2012, farm household agricultural income is expected to be 6,858~9,421 thousand Korean won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external conditions. Off-farm income is forecasted to be shown a slight increase. As a result, farm household income will be stagnant or decreased. In 2012, farm household income is expected to be 28,953~32,594 thousand Korean won.

Policy measures mitigating farm household economy difficulties are to be institutionalized. Under the system, subsidy for fuel and fertilizer would be automatically provided if the prices of those inputs are above a certain level. In mid and long term, improving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is most important for coping with external shocks.

Researchers: Kim Myung-Hwan, Kwon Oh-Bok, Lee Dae-Seob,
Kim Tae-Hun, Cho Young-Su, Park Sang-Mi

Research period: 2008. 10. - 2008. 12.

E-mail address: kimkim@krei.re.kr, obkwon@krei.re.kr, ldaeseb@krei.re.kr,
taehun@krei.re.kr, yscho@krei.re.kr, psm801@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2

제2장 경제여건의 급변과 단기전망

1. 미국발 금융위기로 2008년 세계경제 침체기에 접어들어 3
2. 2009년 선진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듯 5
3.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주요 원자재의 국제가격 하향 안정세 5
4. 2009년 한국 경제 2%대 성장 전망 8

제3장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1. 농업여건변화의 파급 경로 11
2. 분석 모형 12
3. 낙관적, 비관적, 중간 수준 등 세 가지 시나리오 설정 14
4. 농업에 미치는 영향 16

제4장 정책과제

- 참고 문헌 34

표 차 례

제2장

표 2-1. 국제유가 전망	6
표 2-2. 국제 사료곡물가격 전망	7
표 2-3. 국내 경제성장 전망	8
표 2-4.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9
표 2-5. 원달러 환율 전망	10

제3장

표 3-1. 시나리오 설정	15
----------------------	----

부표

부표 1. 세계 및 주요국의 경제 전망	27
부표 2. 농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1)	28
부표 3. 농업 생산액 전망	29
부표 4. 농업 중간투입재비 전망	30
부표 5. 농업부가가치	31
부표 6. 농업소득 전망	32
부표 7. 농가소득 전망단위: 천원, %	33

그 립 차 례

제3장

그림 3-1. 경제여건 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 영향 경로	12
그림 3-2. KASMO의 구조	14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2007년 7월에 표면화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가 2008년 9월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산되고, 10월에는 실물경제위기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상반기까지 상승하던 원유, 곡물 등의 수요가 감퇴하고 헤지펀드도 빠져나가면서 국제가격이 하락하고 환율과 이자율도 불안한 상황이다. 국내외 경제예측기관들은 이러한 경기위축이 최소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2008년 농업은 기상여건이 좋아 쌀과 과일 등은 풍년인 반면, 수입 증가와 수요 위축으로 과일류와 채소류 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그러나 원유, 사료 수입가격 상승과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농가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농가소득이 하락하였다.
- 유가, 환율, 민간소비와 같은 거시경제지표의 불안 등 경제여건 변화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 주요 거시경제지표들의 동향과 주요 전망기관들의 전망치를 검토하고, 그것들이 주요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 분석대상은 한국농업전망모형(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KASMO)의 재배업 부문 43개 품목, 축산업 5개 축종이다. 품목 분석을 통해 농업총량지표를 구했다. 농산업부문별 및 총량지표에 대해서는 단기분석(2008~2009년)을 하고, 총량지표에 대해서는 중기전망(2012년까지)하였다. 경제 변수 동향과 전망은 국내외 관련기관들의 전망자료를 활용하고, 영향분석은 KASMO를 이용하였다.

제2 장

경제여건의 급변과 단기전망

1. 미국발 금융위기로 2008년 세계경제 침체기에 접어들어

-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실물부문으로 파급되면서 소비와 투자 감소 및 수출부진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 세계 각국이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불안과 경기 후퇴는 최소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
 - 금융위기가 선진국의 실물경제 침체로 연결된 가운데 수출 감소 및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개도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도 증대하고 있다. 2008년에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이 1% 내외로 낮아지고, 대부분의 신흥시장국들과 개도국들도 연초 예상보다 1~2% 포인트 하락한 4~7% 경제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부표 1).

¹ 한국은행은 2007년 5.0%이던 세계 경제성장률을 2009년에는 1.9%, 2010년에는 2.5%로 설정하고 있다(한국은행, 2008).

- 금융위기로 2008년 미국 경제는 1% 성장에 그치고, 본격적인 실물경제 침체에 접어들었다.
 - 9월 패니메와 프레디맥(Fannie Mae and Freddie Mac)의 정부관리 체제 편입과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 AIG 구제금융지원 등으로 진행된 미국 금융위기가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 2008년 7,000억 달러의 긴급경제안정화법안이 통과되었으나, 금융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3분기의 -0.3% 실질 GDP 성장 및 10개월 연속 고용감소로 미국경제가 본격적으로 실물경기 침체기에 진입하였다.
- 유럽연합(EU)의 경제는 2008년에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EU 집행위원회와 IMF가 EU 경제성장률이 평균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IMF, November 2008).
 - EU도 2007년 하반기부터 주택경기가 침체기에 돌입했으며, 2008년 들어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이 더해지면서 유럽금융기관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다.
- 미국발 금융위기는 일본의 수출, 투자 등 실물부문의 하강 기조를 더욱 가속화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어 2008년 일본경제가 침체기에 빠져들었다.
 - IMF는 2008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0.5%, 일본은행은 0%, 일본총합연구소는 -0.1%로 추계하였다.
- 중국 경제도 세계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9월 이전부터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이어 세계경기의 위축으로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
 -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및 소비둔화 등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로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제이피모건(J.P. Morgan), IMF 등은 2008년 중국경제가 9.7~10.1% 성장할 것으로 추계하였다.

2. 2009년 선진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듯

- 세계적인 경기후퇴 속에서 2009년 세계 경제는 주식시장과 금융 부문의 하방적 위협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어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부표 1).
 - 미국의 주식시장 침체 및 변동성 증대, 고용시장 악화, 주택시장 부실이 지속되어 2009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IMF는 -0.7%, OECD -0.9%,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1.3% 등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예측하였다.
 - 유럽연합의 경우도 실물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2009년 유럽연합의 경제성장률을 IMF는 -0.2%(2008. 11. 6 전망), EU집행위원회는 0.2%(2008. 11.3 전망)로 전망하였다.
 -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수익 악화, 설비투자 감소, 수출둔화, 소비감소로 2009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IMF는 -0.2%,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트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은 -0.1%로 전망하였다(부표 1).
 - 중국의 수출 및 산업생산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실물경제에 적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IMF는 9.3%로 예상했던 2009년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사이 8.0%로 하향 조정하였다.

3.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주요 원자재의 국제가격 하향 안정세

-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국제원유가가 12월 하순 30달러대로 하락하고, 2009년에는 50달러대로 전망된다.
 - 세계 경기 둔화로 석유수요 감소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투기자금이 탈,2 달러화 강세로 2008년 하반기의 국제유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

이고 있다.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2008년 7월 14일 배럴당 145달러까지 치솟은 이후 하향세로 반전, 12월 20일 현재 34달러로 하락하였다.

- OPEC은 월별 보고서(Oil Market Report, 11. 17)를 통해 2009년 석유수요 전망치를 전월 대비 1백만 b/d³ 감소한 8,568만 b/d로 하향조정하였다(2008. 12). 미국에너지정보청은 2009년도 WTI 가격을 배럴당 51달러로 전망하였다(2008. 12. 9). 한국은행은 2008년 12월11일에 배포한 2009년 경제전망 자료에서 2009년도 원유도입단가를 배럴당 55달러로 가정하였다(표 2-1).

표 2-1. 국제유가 전망

단위: 달러/배럴

	2008				2009			
	EIA	FAPRI	한국은행	한국경제연구원	EIA	FAPRI	한국은행	한국경제연구원
서부텍사스중질유(WTI)	100	-	-	-	51	-	-	-
기타 ¹⁾	-	97	99	100	-	61	55	60

주: 1) WTI, 브랜트유, 두바이유 가격의 가중 평균 가격

자료: EIA: 미국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08. 12. 9.

FAPRI: 미국식품농업정책연구소(Food and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 2008. 12. 10.

한국은행, 「2009년 경제전망」 2008. 12. 11.

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8. 12.

- 향후 몇 년간 국제곡물가격도 곡물 생산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² 여기서 투기자금이란 유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겨냥한 각종 펀드나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투기자본이 원유의 투기적 수요를 높여 유가상승을 부채질하였다는 의견이 있다.

³ 1일당 배럴(barrels per day)

- 2008/09년 세계 곡물 생산은 전년 대비 약 5% 증가할 전망이며, 경기침체에 따른 사료 곡물 수요 감소 및 에탄올 생산 감소로 인한 사료곡물재고 증가로 쌀, 옥수수, 대두 등 국제곡물가격이 하향 안정세에 있다.⁴
- 주요 생산국의 생산 증가와 국제 유가 하락, 금융시장 불안, 바이오연료 생산 감소 등으로 2009/10년 쌀, 옥수수, 대두의 톤당 가격은 각각 812달러, 1,878달러, 286달러로 전망된다(표 2-2).

표 2-2. 국제 사료곡물가격 전망

단위: 달러/톤

	쌀		대두		옥수수	
	OECD-FAO ¹⁾	FAPRI ²⁾	OECD-FAO ³⁾	FAPRI	OECD-FAO	FAPRI
2008/09	390.6	828.0	481.9	318.9	185.3	186.5
2009/10	367.9	811.8	470.6	285.8	185.0	186.6
2010/11	330.7	814.1	468.3	270.3	189.0	185.0
2011/12	326.7	788.8	464.2	271.4	188.4	192.0
2012/13	337.2	774.9	455.8	276.7	178.5	196.4

주: 1. 태국산 정곡 기준

2. 미국 중립종 정곡기준

3. 유럽향 유지작물 가격의 가중평균임.

자료: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교 식품 및 농업정책연구소(Food and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 2008. 12. 10

OECD, FAO. 2008.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8-17.

⁴ 2008년 12월 19일 기준 국제 쌀(중립종), 옥수수와 대두 가격은 각각 톤당 1,150달러, 153달러, 319달러이다.

4. 2009년 한국 경제 2%대 성장 전망

- 세계적인 경기 침체, 외환시장 불안정, 실물부분의 위축 등으로 2008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7%에 머물고, 2009년에는 2.0% 경제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⁵
 - 2008년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분의 부진 지속으로 실질성장률은 3.7%에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품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비스와 제조업의 생산 증가율도 둔화 추세에 있다.
 -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소비 회복의 지연 등에 따라 2009년 한국 경제가 2%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2009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로 발표하였고, 한국경제연구원은 3.8%로 발표하였던 2009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4%로 하향 조정하였다(표 2-3).

표 2-3. 국내 경제성장 전망

단위: %

	2008 (잠정)	2009
국회예산처(2008.10)	4.2	3.7
KDI(2008.11)	4.2	3.3
한국경제연구원(2008.12)	4.1	2.4
삼성경제연구소(2008.10)	4.2	3.6
LG경제연구원(2008.10)	-	3.6
한국은행(2008.12)	3.7	2.0
IMF(2008.11)	4.1	3.5
OECD(2008.11)	4.2	2.7

⁵ 한국은행은 2009년 1월 2008년 경제성장률을 2.8%로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또한, 2009년 2월 5일 200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2.0%에서 0.3%로 하향 조정하였다.

- 2009년 중 소비자물가는 국제 원자재가격의 하락세 및 수요 약화 등에 따라 2.5~3.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8년 3분기까지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급등했던 소비자 물가가 10월 이후 상품가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어 2008년 소비자물가는 4.7% 상승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세 전환, 국내 경기 둔화 등에 따라 2009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대로 하락하는 등 물가는 안정화될 전망이다. 2008년 12월 한국은행과 한국경제연구원은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각 3.0%, 2.5%로 전망하였다(표 2-4).

표 2-4.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단위: %

	2008(잠정)	2009
국회예산처(2008.10)	4.9	3.8
KDI(2008.11)	4.8	3.6
삼성경제연구소(2008.10)	4.9	3.2
한국경제연구원(2008.12)	4.7	2.5
한국은행(2008.12)	4.7	3.0
IMF(2008.10)	4.8	4.0

- 2009년 환율은 외화유동성 경색 완화, 경상수지흑자 기조 등의 영향으로 1,200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연초 달러당 93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하반기 이후 외환시장의 불안정으로 12월 초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다가(12월 4일 1,477원까지 상승), 미국,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왑협정체결로 상승세가 둔화되어 12월 19일 1,290원/달러이다.

- 2009년에는 외환시장 불안 요인이 상존하지만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외국인주식순매도가 축소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국내 내수부문의 부진은 수입수요를 둔화시키고 이는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한국경제연구원은 2009년 환율을 1,210원으로 전망하였다(표 2-5).

표 2-5. 원달러 환율 전망

	2008(참정)	2009
국회예산처(2008.10)	1,076	1,168
한국경제연구원(2008.12)	-	1,210
삼성경제연구소(2008.10)	1,047	1,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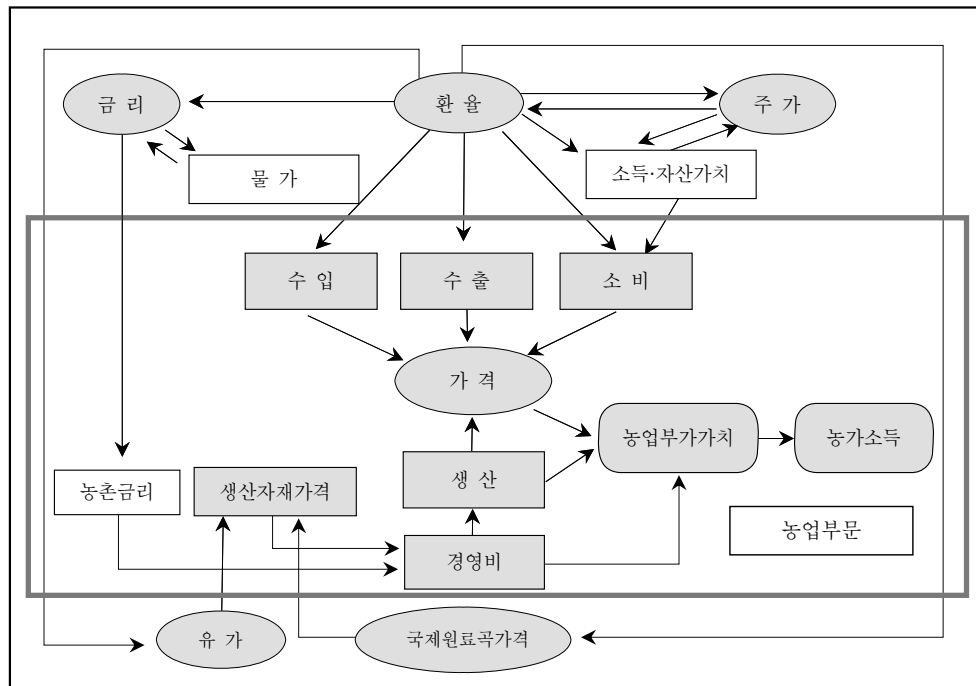
제 3 장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1. 농업여건 변화의 파급 경로

- 환율, 국제유가 등 거시변수는 농업경영비와 소비에 대한 영향을 통해 농업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그림 3-1).
 - 환율은 수입농산물의 가격 변화를 통해 국내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수입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환율 및 유가가 높으면 수입원자재에 의존하는 비료, 농기계, 사료 등 농업자재 가격이 올라 농업경영비가 상승하여 역시 농업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 경기 침체로 인한 개인의 소득 및 자산 가치의 하락은 농산물 소비에 영향을 주어 결국 농산물가격이 영향을 받는다. 경제성장률이 낮을수록 소득탄성치가 높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하여 농산물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그에 따라 농업소득이 감소할 것이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낮으면 겸업 및 이전 소득 등 농업외소득도 감소할 것이다.

그림 3-1. 경제여건 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 영향 경로



2. 분석 모형

- 환율, 국제유가, 경제성장률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부분균형모형인 KASMO 2008(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을 이용하였다.
- KASMO⁶는 거시경제변수부문, 농업요소부문, 재배업부문, 축산업부문, 농업총량부문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시경제변수부문에서는 인구, 국제유가, 환율, 경제성장률,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가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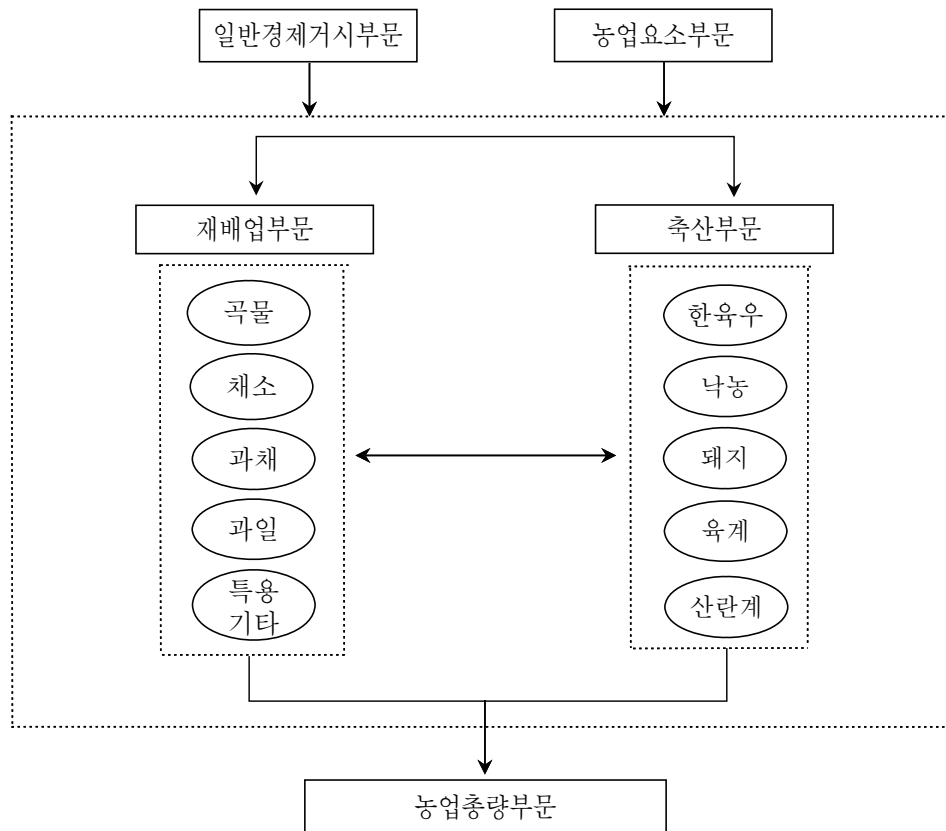
⁶ KASMO 구조와 세부 추정결과는 김명환 외(2008) 참조.

수 등과 같은 거시경제변수를 외생적으로 도입하여 1인당 가처분소득 등을 전망한다.

- 이 연구에서 환율 등 외생변수가 농자재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이용된 농업 요소부문은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하여 농기구가격지수, 경상재가격지수, 투입재가격지수, 농업노임지수, 농지임차료지수 등과 같은 농업생산요소가격을 전망하여 품목별 수급모형과 경영비 계산에 이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농기계 가격지수는 국제유가, 환율, 생산자물가지수의 함수로 추정된다. 비료가격지수는 유가와 생산자물가지수의 함수로 구성된다. 농약가격지수는 환율, GDP 디플레이터, 유가의 함수로 추정된다. 영농광열비는 환율과 국제유가의 함수로 추정된다. 축산부문의 사료비는 환율과 국제사료곡물가격의 함수로 추정된다.⁷
- 재배업부문은 곡물, 채소, 과채, 과일, 특용·기타 작물로 구분되고, 각 품목은 재배면적함수, 단수함수, 수요함수, 수입수요함수, 수급균형 항등식 등으로 구성되어 품목별 수급전망 및 균형가격을 도출한다.
- 축산업부문은 한육우, 낙농, 돼지, 육계, 산란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낙농은 치즈, 버터, 분유 등으로 세분류되어 있다. 사육두수 등과 같은 공급측 함수는 연령별 생존율 등을 적용한 생물학적 모형으로, 수요 및 수입수요 함수 등의 수요측 함수는 계량경제모형으로 추정되어 축종별 수급전망 및 균형가격을 도출한다.

⁷ 농업전망부분균형모형인 KASMO에서는 금리, 주가, 농촌금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 다만 이들 변수가 경제성장률, CPI, PPI 등에 영향을 미쳐 농업경영비와 농산물 가격 등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다. 또한 분석기간 동안 국제사료곡물은 하향 안정세로 전망되어 시나리오 구성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KASOM에서는 환율변화가 사료비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다.

그림 3-2. KASMO의 구조



3. 낙관적, 비관적, 중간 수준 등 세 가지 시나리오 설정

- 2009년 이후 5년간 경제성장률이 5%대로 유지되는 낙관적 시나리오와, 경기 침체로 경제성장이 0%로 정체되고 환율이 1,500원인 비관적 시나리오, 두 가지 시나리오의 중간 시나리오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⁸.

⁸ 이 분석에서는 환율, 국제유가, 경제성장률 변화만을 고려했는데, 이것은 농업 경영비와 농산물 소비가 이러한 거시변수의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자물가, 생산

- 시나리오 I(낙관적)에서는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5%, 환율 1,100원, 배럴당 국제유가 50달러를 가정하였다(표 3-1).
- 시나리오 II(비관적)는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0%, 환율 1,500원, 배럴당 국제유가 100달러를 가정하였다.
- 시나리오 III(중간 수준)에서는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2.5%, 환율 1,300원, 배럴당 국제유가 75달러를 가정하였다.⁹

표 3-1. 시나리오 설정

	GDP 증가율	환율	국제유가 (두바이 기준)
단위	%	원/달러	달러/배럴
시나리오 I (낙관적)	5	1,100	50
시나리오 II(비관적)	0	1,500	100
시나리오 III(중간적)	2.5	1,300	75

- 분석 대상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인데, 2008년 분석결과는 자료 수집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까지의 실제 가격과 생산량을 기초로 추정하고, 그 밖의 연도는 KASMO 추정결과이다.

자물가, GDP 디플레이터 변화로 인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

⁹ 그 밖에 거시변수의 가정에 대해서는 김명환 외(2008) 참조.

4. 농업에 미치는 영향

1.1.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농자재 가격 안정 전망

- 주요 농자재 원재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이 변하면 국내 농자재 가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 농자재의 제조원가¹⁰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료 71%, 농약 78%, 농기계 75%, 사료 80% 등으로 높은 편이다.
 - 우리나라는 이러한 농자재 원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율 또는 유가가 변하면 농자재 가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 환율 상승 및 국제유가 강세에 따라 2008년 농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농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 2008년 비료, 농약 등 농업용품의 가격지수는 환율 및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1.3% 상승하였다. 특히, 비료비(113% 가격 상승), 사료비(36%), 영농광열비(44%), 영농자재비(30%)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부표 2).
- 2009년 이후 낙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주요 농자재 가격은 하락 또는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 낙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2008~2012년간 비료가격이 연평균 18.3% 하락하고, 광열비와 농기계 가격도 연평균 10.1%, 1.7% 하락할 전망이다.
 - 국제곡물가격 이외에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료비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연평균 1.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¹⁰ 제조원가에는 재료비, 노임, 경비 등이 포함된다.

- 2009년 이후 고환율과 국제유가 강세를 가정한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대부분의 농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비료가격만 연평균 3.1% 하락할 뿐, 광열비(연평균 10.2% 상승), 농약(8.0%), 사료비(6.4%)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1.2. 농업생산액에 대한 영향

- 2008년 농업생산액은 곡물 생산 증가와 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한 것으로 추계되었다(부표 3).
 - 특히 쌀의 생산과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9.9%,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액이 전년 대비 17.2%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채소와 과일은 풍작으로 인해 일부 품목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년 대비 생산액이 각각 6.2%, 8.8% 감소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 2008년 축산업의 경우 한육우 이외 모든 축종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한육우 가격만 전년 대비 9.3% 하락하였을 뿐 나머지 축종 가격은 전년보다 높아 축산물 생산액은 전년 대비 17.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09년 이후 낙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0.2% 하락할 전망이다.
 - 곡물 생산액은 연평균 4.3% 감소할 전망인데, 맥류와 두류의 생산액이 소폭 증가할 뿐 쌀을 비롯한 다른 곡종의 생산액은 정체 또는 감소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 채소류 생산액은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마늘, 양파, 파, 호박, 풋고추 등이다. 과일 중에는 사과, 복숭아, 감귤 생산액이 소폭 증가하고, 나머지 과일 생산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축산물은 연평균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종 구분 없이 한육우, 낙농, 양돈, 육계, 산란계 생산액이 모두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9년 이후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2.3% 하락할 전망이다.
 - 환율이 높으면 수입농산물이 감소하는 대신 국내산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생산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효과로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쌀은 연평균 생산량이 3.4% 감소하고, 가격이 매년 8.1% 하락하여 생산액이 매년 11.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 채소 중에는 봄배추, 가을무, 양파 등 소수 품목의 생산액이 증가할 뿐 대부분의 품목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일 중에는 사과, 복숭아 등의 생산액이 소폭 증가하고, 나머지 품목은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축산물은 육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축종에서 생산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 2009년 이후 중간수준의 경제 전망을 상정한 시나리오 III에서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1.3% 감소할 전망이다.
 - 곡물 생산액은 연평균 6.2% 감소하는데, 쌀은 생산량과 가격이 각각 연평균 3.1%, 5.8% 감소하여 생산액이 매년 9%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채소 중에는 봄배추, 양배추, 봄무, 가을무, 양파, 참외 등의 생산액이 증가하고 나머지 품목의 생산액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과일에서는 앞의 시나리오들에서처럼 사과, 포도, 복숭아 생산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축산업의 생산액은 연평균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3. 농업 중간투입재비에 미치는 영향

- 2008년 농업 중간투입재비(비료비+농약비+종자비+제재료비 등)는 비료 및 사료 등 농자재 가격의 큰 폭 상승으로 전년 대비 33.8%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
 - 비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곡물 중간투입재비가 전년 대비 55.3% 증가하였고, 쌀의 중간투입재비는 57.0%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부표 4).
 - 채소와 과일의 중간투입재비도 전년 대비 각각 47%, 38%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드는 과채류의 중간투입재비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추계되었는데, 특히 풋고추(77%)와 참외(68%)의 중간투입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축산물의 중간투입재비(경상비+사료비+가축비)는 전체적으로 28.2% 증가하였는데, 한육우 경상비와 사료비는 전년 대비 47.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2009년 이후 낙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중간투입재비는 연평균 0.6% 증가할 전망이다.
 - 곡물 중간투입재비는 연평균 1.9% 감소할 전망인데, 쌀의 중간투입재비는 연평균 2.8% 감소할 전망이다. 이처럼 쌀을 비롯한 곡물의 중간투입재비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것은 환율과 국제유가가 낮고, 생산량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 채소와 과일의 중간투입재비는 연평균 0.3%.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 축산물의 중간투입재비는 연평균 1.1% 증가할 전망이다.
- 2009년 이후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중간투입재비는 광열비와 사료가격의 급등으로 연평균 1.3% 증가할 전망이다.

- 곡물 중간투입재비는 연평균 3.5% 증가할 전망이며, 쌀의 중간투입재비는 연평균 2.5% 증가할 전망이다.
 - 채소와 과일의 중간투입재비는 각각 연평균 2.4%,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소 중에는 풋고추(연평균 7.2% 증가), 마늘·양파 (5.6%)의 중간투입재비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고, 과일 중에는 복숭아(연평균 5.4% 증가), 감귤(4.9%), 단감(3.9%) 중간투입재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같은 기간 축산물의 중간투입재비는 0.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낙농(연평균 1.57% 증가), 한육우(0.94%), 육계(0.47%)의 중간투입재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9년 이후 중간적 시나리오 하에서 중간투입재비는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의 중간인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곡물 중간투입재비는 연평균 1.0% 증가할 전망이며, 쌀의 중간투입재비는 연평균 0.1% 증가할 전망이다.
 - 같은 기간 채소, 과일, 축산물의 중간투입재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2%, 1.9%, 0.7%로 전망되었다.

1.4. 농업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 2008년 농업생산액이 9.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자재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농업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3.0% 하락한 것으로 추계된다.
- 2008년 곡물 부가가치는 쌀과 두류의 생산액 증가로 전년 대비 14.3% 증가한 것으로 추계된다(부표 5). 쌀 부가가치는 2007년 7조 1,460억 원에서 2008년 8조 510억 원으로 늘어나 전년 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 채소 부가가치는 가을 무, 배추 생산액 감소와 중간투입재비 증가로 전년 대비 26.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8년 가을 배추, 무의 농업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각각 33.3%, 48.0%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 과일 부가가치는 배와 감귤의 생산액 감소와 중간투입재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19.4%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배와 감귤의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각각 58.5%, 53.0% 감소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 2008년 축산 부가가치는 한육우 생산액 감소와 중간투입재비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8년 축종별 전년 대비 부가가치 증감률은 한육우 -44.7%, 낙농 -24.8%, 돼지고기 11.5%, 육계 89.8%, 산란계 33.9% 등이다.
- 2009년 이후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농업부가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비관적 시나리오인 시나리오 II에서 감소율이 가장 크고, 다음이 중간적 시나리오 III, 낙관적 시나리오 I 순이다.
- 최악의 경제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 II에서 2008~2012년 농업부가가치는 연평균 5.7% 감소하고, 시나리오 III에서는 3.4%, 그리고 시나리오 I에서는 1.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이는 농업여건의 획기적인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농업이 앞으로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는 의미이다.
 - 품목군별로는 축산물만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을 뿐 나머지 품목군들의 부가가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9년 이후 중간적 시나리오 기준 곡물, 채소, 과일의 부가가치는 각각 연평균 7.5%, 0.7%, 2.8% 감소하고, 축산물 부가가치는 연평균 4.5% 증가할 전망이다.
- 쌀의 부가가치는 연평균 10.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쌀 소비

와 생산이 계속 감소하고, 경영비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채소류 중에는 양파, 양배추, 가을무 등의 부가가치가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나머지 품목의 부가가치는 대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과일 중에는 사과와 부가가치가 연평균 2.6% 증가할 뿐, 배(-21.8%), 포도(-2.8%), 감귤(-1.5%) 등 다른 과일의 부가가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축산물 중에는 한육우와 육계(부가가치 각각 연평균 5.2%, 10.1% 감소)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인 반면, 낙농(부가가치 연평균 13.5%), 돼지(7.0%), 산란계(5.3%)의 부가가치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1.5.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 2008년 농업소득은 농업 전부문에서 중간투입재비용을 비롯한 경영비의 큰 폭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추계된다.
 - 곡물부문은 쌀과 두류 생산액의 대폭 증가로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부표 6). 2008 쌀 소득은 5조 1,660억 원으로 전년의 4조 7,230억 원보다 9.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08년 채소 소득은 가을배추, 무 등의 생산액 감소와 경영비 증가로 전년 대비 37.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고랭지배추와 가을무 소득은 전년 대비 각각 94.5%, 75.0% 감소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 과일 소득 역시 배, 감귤 등의 생산액 감소와 경영비 증가로 전년 대비 25.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배와 감귤 소득은 전년 대비 각각 75.0%, 67.2% 감소한 반면, 포도와 복숭아 소득은 전년 대비 각각 11.3%, 30.2%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 2008년 축산업소득은 전 축종의 생산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년 대비 8.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돼지고

기, 육계, 산란계의 소득은 증가한 반면 한육우와 낙농의 소득은 전년 대비 각각 52.5%, 28.9%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 2009년 이후 모든 시나리오에서 농업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농업소득 연평균 감소율이 9.0%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중간적(-5.3%), 낙관적(-1.7%) 순이다.
 - 곡물 소득은 연평균 5.8~14.0% 감소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쌀 소득은 비관적인 경우 연평균 21.5%, 낙관적인 경우 연평균 9.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채소 소득은 향후 5년간 연평균 3.7% 증가하지만,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5.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과일 소득은 향후 5년간 연평균 2.0~6.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일 중에는 포도와 복숭아 소득만이 증가세를 보이고, 나머지 과일 소득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축산 소득은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4.2~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한육우와 육계 소득은 감세추세를 보이고, 나머지 축종의 소득은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1.6.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 2008년 호당 농가소득은 3,111~3,1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2.7%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 농업생산액 대비 농업경영비의 큰 폭 상승으로 2008년 호당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7.9~8.2% 감소한 955~95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08년 농업외 소득은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전년 대비 0.01% 감소하고, 나머지 두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0.3%, 0.1% 증가한 것으로 추계되었다(부표 7).

- 따라서 2008년 농가소득은 2007년 3,197만 원에서 전년 대비 2.4~2.7% 감소한 3,111~3,121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09년 이후 호당 농가소득은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연평균 1.1% 증가하지만, 중간적 및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각각 0.4%,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2008~2012년 호당 농업소득은 연평균 0.4~8.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제여건이 나쁠수록 호당 농업소득의 감소폭이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 농업외 소득도 경제사정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여, 낙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7% 증가하지만, 중간적 및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연평균 각각 1.1%, 0.6%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¹¹
 - 향후 5년간 농가소득은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1.1% 증가하겠지만, 중간적 및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연평균 0.4%,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¹¹ 농외소득은 겸업소득, 사업외 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기타 사적보조, 출타가족보조 등으로 구성된다. 경제 성장이 없는 경우를 상정한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겸업소득과 이전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임금 및 농외취업자수의 함수로 구성된 사업외 소득은 연평균 3.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명목 임금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도 농외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 장

정책과제

- 국내외 경제여건변화에 따라 국내경제의 전반적인 침체가 우려되고, 농업부문에서도 농업부가가치와 농가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 향후 당분간 농가소득이 불안정하고 하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고 향상시킬 대책이 필요하다.
 - 마이너스 농업성장을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시킬 새로운 성장동력원 확보가 중요하다.
-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위험대처 능력 향상 및 정책 보상 등의 정책을 통해 단기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농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의해 농가경제가 심각하게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국가가 재난구제 정도로 농가경제를 자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시적 경영회생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면, 유가 또는 환율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사료, 비료와 같은 농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실시 중인 재해보험제도의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생산비 보장 보험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농가경영안정을 기하기 위해 농가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농에 대해서는 직불금제도를 활용하고, 대처능력이 앞선 대농들에 대해서는 보험이나 농가단위 소득안정계정과 같은 경영안정정책이 필요하다.
-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소득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소득원 개발이 필요하다.
 - 농업외 소득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농공단지가 농어촌지역의 산업인프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농어촌체험·휴양 관광 서비스 산업화가 필요하다.
 - 네트워킹, 지역혁신그룹, 클러스터 조직화를 통해 지역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 마이너스 농업성장을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원 확보가 필요하다.
 - 농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농산물 시장의 외연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식품산업육성, 저탄소 녹색성장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전략부문을 대상으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서 바이오메스 활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바이오작물 품종개발, 생산확대 및 에너지화를 연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표 1. 세계 및 주요국의 경제 전망

단위: %

		2007	2008	2009
세 계	IMF	5.0	3.7	2.2
	Global Insight	-	2.7	0.0~0.5
선진국	IMF	2.6	1.4	-0.3
	OECD	2.7	1.8	1.7
	IMF	2.0	1.2	-0.7
미국	OECD	2.0	1.41)	-0.91)
	Global Insight	-	-	1.8
유로지역	IMF	2.6	1.2	-0.5
	OECD	2.6	1.7	-0.61)
	Global Insight	-	-	1.0
일본	IMF	2.1	0.5	-0.2
	OECD	1.9	0.51)	-0.11)
아시아 신흥경제국	Global Insight	-	-	1.3
	IMF	5.6	3.9	2.1
중국	IMF	11.9	9.7	8.5
	OECD	11.3	9.51)	8.01)
	Global Insight	-	11.9	6.9

주: 1)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08 자료임.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November 6, 2008.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October, 2008.
 OECD, OECD Economic Outlook, May 28, 2008.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08.
 Global Insight, Top-10 Economic Predictions for 2009, December 11, 2008.

부표 2. 농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¹⁾

단위: 2007=100

		2007	2008	2009	2012	2007~ 2008 증감률	2008~ 2012 증감률
비료	시나리오 I	100	213.3	92	95	113.3	-18.3
	시나리오 II			185	188		-3.1
	시나리오 III			134	137		-10.5
농약	시나리오 I	100	104.3	109	110	4.3	1.3
	시나리오 II			141	142		8.0
	시나리오 III			124	125		4.6
사료	시나리오 I	100	135.9	139	142	35.9	1.1
	시나리오 II			170	174		6.4
	시나리오 III			155	158		3.8
농기계	시나리오 I	100	108.1	99	101	8.1	-1.7
	시나리오 II			112	114		1.3
	시나리오 III			106	107		-0.3
광열비	시나리오 I	100	143.9	91	94	43.9	-10.1
	시나리오 II			210	212		10.2
	시나리오 III			144	147		0.5

주: 2007~2008년은 실제치이고, 그 이후는 전망치임. 이하의 분석결과도 동일함.

부표 3. 농업 생산액 전망

단위: 10억원, %

		2007	2008	2009	2012	2007~ 2008 증감률	2008~ 2012 증감률
곡물	시나리오 I	8,910	10,588	9,410	8,875	18.8	-4.3
	시나리오 II			8,625	7,528		-8.2
	시나리오 III			9,011	8,212		-6.2
채소	시나리오 I	7,483	7,017	7,423	7,430	-6.2	1.4
	시나리오 II			7,440	6,760		-0.9
	시나리오 III			7,452	7,058		0.1
과일	시나리오 I	2,822	2,574	2,571	2,482	-8.8	-0.9
	시나리오 II			2,573	2,373		-2.0
	시나리오 III			2,574	2,430		-1.4
특용 및 기타작물	시나리오 I	2,501	2,821	2,989	2,909	12.8	0.8
	시나리오 II			2,738	2,269		-5.3
	시나리오 III			2,862	2,531		-2.7
축산	시나리오 I	11,277	13,228	13,523	14,236	17.3	1.9
	시나리오 II			13,474	14,073		1.6
	시나리오 III			13,501	14,161		1.7
계	시나리오 I	34,685	38,087	37,758	37,776	9.8	-0.2
	시나리오 II			36,638	34,696		-2.3
	시나리오 III			37,216	36,155		-1.3

부표 4. 농업 중간투입재비 전망

단위: 10억원, %

		2007	2008	2009	2012	2007 ~2008 증감률	2008 ~2012 증감률
곡물	시나리오 I	1,005	1,561	1,438	1,448	55.3	-1.9
	시나리오 II			1,831	1,789		3.5
	시나리오 III			1,643	1,626		1.0
채소	시나리오 I	1,638	2,405	2,319	2,380	46.8	-0.3
	시나리오 II			2,671	2,648		2.4
	시나리오 III			2,502	2,521		1.2
과일	시나리오 I	505	698	680	688	38.2	-0.4
	시나리오 II			810	812		3.8
	시나리오 III			748	753		1.9
특용 및 기타작물	시나리오 I	732	959	948	1,016	31.1	1.5
	시나리오 II			1,030	1,065		2.7
	시나리오 III			990	1,041		2.1
축산	시나리오 I	7,718	9,896	10,012	10,352	28.2	1.1
	시나리오 II			9,892	10,021		0.3
	시나리오 III			9,948	10,177		0.7
계	시나리오 I	11,599	15,520	15,398	15,885	33.8	0.6
	시나리오 II			16,233	16,334		1.3
	시나리오 III			15,830	16,117		1.0

부표 5. 농업부가가치

단위: 10억원, %

		2007	2008	2009	2012	2007 ~2008 증감률	2008 ~2012 증감률
곡물	시나리오 I	8,088	9,245	8,165	7,610	14.3	-4.8
	시나리오 II			6,972	5,894		-10.6
	시나리오 III			7,554	6,755		-7.5
채소	시나리오 I	4,324	3,186	3,596	3,540	-26.3	2.7
	시나리오 II			3,257	2,738		-3.7
	시나리오 III			3,436	3,102		-0.7
과일	시나리오 I	2,231	1,798	1,813	1,718	-19.4	-1.1
	시나리오 II			1,685	1,489		-4.6
	시나리오 III			1,748	1,603		-2.8
특용 및 기타작물	시나리오 I	1,835	1,939	2,135	1,989	5.7	0.6
	시나리오 II			1,788	1,269		-10.1
	시나리오 III			1,959	1,568		-5.2
축산	시나리오 I	2,803	2,642	2,780	3,072	-5.7	3.8
	시나리오 II			2,835	3,199		4.9
	시나리오 III			2,813	3,148		4.5
계	시나리오 I	20,633	20,014	19,784	19,231	-3.0	-1.0
	시나리오 II			17,866	15,813		-5.7
	시나리오 III			18,826	17,434		-3.4

부표 6. 농업소득 전망

단위: 10억원, %

		2007	2008	2009	2012	2007 ~ 2008 증감률	2008 ~ 2012 증감률
곡물	시나리오 I	5,466	6,135	5,177	4,836	12.3	-5.8
	시나리오 II			4,017	3,353		-14.0
	시나리오 III			4,583	4,106		-9.6
채소	시나리오 I	3,517	2,189	2,607	2,530	-37.8	3.7
	시나리오 II			2,278	1,778		-5.1
	시나리오 III			2,452	2,118		-0.8
과일	시나리오 I	1,821	1,355	1,363	1,249	-25.6	-2.0
	시나리오 II			1,236	1,024		-6.8
	시나리오 III			1,298	1,136		-4.3
특용 및 기타작물	시나리오 I	1,393	1,390	1,572	1,377	-0.2	-0.2
	시나리오 II			1,201	657		-17.1
	시나리오 III			1,384	956		-8.9
축산	시나리오 I	1,726	1,576	1,663	1,861	-8.7	4.2
	시나리오 II			1,706	1,965		5.7
	시나리오 III			1,689	1,922		5.1
계	시나리오 I	12,810	11,634	11,380	10,867	-9.2	-1.7
	시나리오 II			9,561	7,986		-9.0
	시나리오 III			10,467	9,354		-5.3

부표 7. 농가소득 전망단위: 천원, %

		2007	2008	2009	2012	2007 ~2008 증감률	2008 ~2012 증감률
농업소득 (A)	시나리오 I	10,406	9,583	9,502	9,421	-7.9	-0.4
	시나리오 II		9,552	7,932	6,858	-8.2	-8.0
	시나리오 III		9,567	8,711	8,071	-8.1	-4.2
농업외소득 (B)	시나리오 I	21,562	21,625	22,043	23,173	0.3	1.7
	시나리오 II		21,559	21,986	22,096	-0.01	0.6
	시나리오 III		21,592	22,007	22,571	0.1	1.1
농가소득 (A+B)	시나리오 I	31,967	31,207	31,545	32,594	-2.4	1.1
	시나리오 II		31,111	29,917	28,953	-2.7	-1.8
	시나리오 III		31,160	30,718	30,642	-2.5	-0.4

참고 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08. 10. 「2009년 경제전망」.
- 김병률, 김배성, 조영수, 이용호. 2006. “유가상승과 환율하락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속보 제 33권.
- 김병률, 이명기. 2007. “국제곡물가격 상승 전망과 파급영향.” 「국제 곡물가격 상승 영향과 대응전략: 심포지엄 자료집」.
- 김병률, 이명기, 유찬희. 2008. “애그플레이션 동향과 전망 및 대응방안.” 「애그플레이션의 농식품 부문 영향과 대응방향: 정책토론회 자료집」.
- 김명환 외. 2008. 「농업부문 전망모형 구축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명환 외. 2008. 농업부문 전망모형 구축 연구.
- 김용택, 김배성, 성명환. 2008. “국제곡물가격 상승 전망과 파급영향.” 「농업전망 2008」. pp. 37-5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2008. 10. 「2009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 정은미, 정학균, 김수림, 윤선희. 2008. “유가상승이 시설채소 농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속보 제 46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농업·농촌경제동향」. 2008년 가을호(M48-11-31).
- 한국경제연구원. 2008. 10. 「2009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_____. 2008. 12.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한국은행. 2008. 10. 「경제동향」.
- _____. 2008.12.11. 「2009년 경제전망」.
- 허덕, 김현중. 2008.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속보 제 47권.
- 허덕 · 정민국 · 김현중. 2007. “사육여건 변화가 양돈소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속보 제 44권.
- KDI. 2008. 10. 「2008년 하반기 경제 전망」.
- LG 경제연구원. 2008. 10. 「2009년 경제전망」.
- Global Insight. December 11, 2008. Top-10 Economic Predictions for 2009.
- EIA. December 9 2008. Short Term Energy Outlook.
- FAO. October 2008.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No. 4.

IMF. November 6, 2008.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IMF. 2008. World Economic Outlook.

IMF. November 6, 2008.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IMF. October, 2008.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OECD. May 28, 2008. OECD Economic Outlook.

OECD, FAO. 2008.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8-17.

OECD. November 17, 2008. Oil Market Report.

OECD. November 25, 2008. OECD Economic Outlook.

정책연구보고 P116

경제여건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9. 12.
발 행 2009. 12.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동양문화인쇄포럼
02-2242-7120 e-mail: dongyt@chol.com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